

DSM, 비타민 수익 개선효과 없다!

비타민 · 정밀화학 구조조정으로 코스트 절감 ... 신사업부 DNP 설립

DSM은 연평균 최소 1억5000만유로(1억7600만달러)의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 최근 인수한 Roche의 비타민 및 정밀화학사업 통합 및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DSM은 4개월에 걸친 EC(European Commission)의 인수조사를 통과해 Roche 사업을 17억5000만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DSM은 총 2억유로를 투자해 2005년 말까지 비타민 및 정밀화학 사업을 통합할 계획으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단행할 전망이다.

2003년 초 발표한 7500만유로 코스트 축소 프로그램에 이은 2번째 코스트 감축 프로그램으로 DSM은 루이지애나주 Addis 소재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Elastomer 플랜트를 2004년 중반까지 폐쇄하고 일본 Chiba 소재 EPDM 플랜트도 앞으로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 Greenville 및 네덜란드 Venlo 소재 의약품 중간체 플랜트 가동계획을 연기할 계획이나 Greenville 플랜트의 Formulation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DSM은 플랜트 폐쇄에 따라 전체 직원의 3%에 달하는 600명 이상을 감원함으로써 3/4분기 총 1억200만유로의 수수료(One-Time Charge)를 부담하게 되며, 최근 오스트리아 Linz 소재 Glyoxylic Acid 플랜트 폭발사고와 관련해 1500만유로를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DSM은 3/4분기 손실액 총 7000만-9000만유로를 기록할 전망이다.

DSM은 기존의 비타민 및 동물사료 성분요소 사업을 Roche의 비타민 및 정밀화학 사업과 합병해 새로운 사업부 DNP(DSM Nutritional Products)를 설립할 계획이다. Roche 사업의 매출액은 23억유로로 그 중 50% 이상을 사료사업에서, 21%는 식료품 원료성분 사업에서, 나머지는 화장품 원료성분 등 기타 사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DSM은 식료품 원료성분 사업에서 8억유로, 사료 원료성분 사업에서 2억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다.

DSM은 기존의 Roche 사업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초기 창립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3년 말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DSM의 Roche 사업 인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Rabo Securities는 Roche 사업은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DSM이 수익성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DSM이 마진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Roche 사업인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카로테노이드 분야에 진출함에 따른 경쟁심화로 단기적인 코스트 절감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DSM은 Roche 사업 및 Novozymes의 사료효소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Novozyme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생산 및 포물레이션 기술을 제공하고 Roche 사업이 생산능력 부문을 담당할 전망이다.

DSM은 독점방지 당국으로부터 Roche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BASF와의 Phytase 사료효소 합작사업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에 BASF는 2003년 9월 DSM의 지분을 매각하고 Phytase 플랜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DSM은 2002년 석유화학사업 대부분을 Sabic에 매각했으며 Roche 사업을 특수 및 생명과학 분야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익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DSM은 여름경기 악화로 3/4분기 수익이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Chemical Journal 2003/12/23>